

러시아 정교회의 주교들, 사제들, 보제들,
수도자들과 모든 충실한 자녀들에게 보내는
모스크바 및 쏘 루시 총대주교 키릴의
성탄절 서신

주님 안에서 경애하는 주교님들,
존경하는 사제님들과 보제님들,
하느님을 사랑하는 수사님들과 수녀님들,
친애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 모두께 광명의 그리스도 성탄 대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천상과 지상의 교회는 주님이신 우리의 구세주께서 세상에 오심에 기뻐하며 경축하고,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가 가사를 들으며 영적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네! 그분께 송영하여라!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강림하셨네! 그분을 맞이하여라!”(그리스도 성탄절 카논의 이르모스) 우리는 경건과 희망을 품고서 베들레헴 동굴 안 허름한 구유에 누우신 포대기 차림의 하느님 아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참으로 “하느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그 옳으심이 성령으로 입증되었으며 천사들에게 당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1 티모테오 3:16) 하느님 육화의 신비를 순전히 지성으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존재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신 분께서 지금 동물들의 입김에 몸을 덥히시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조물주께서 당신자신을 낮추시고, 피조물의 형상을 취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성주교 요한 금구는 이렇게 짚어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곳에서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원하셨고, 가능하셨으며, 강림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께 속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께서 오늘 태어나셨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께서 원래 아니셨던 무언가가 되셨습니다. 하느님으로서 그분께서는 인간이 되셨고, 동시에 하느님이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 설교)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성탄 대축일을 기리며 만인류에게 있어서 그 불변하는 영적 의미와 관건적인 의의에 대하여 숙고합니다. 그리고 이는 옳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께 기도 드릴 때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라고 일컫는 만큼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하느님 육화의 신비가 가지는 개인적 의미도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아 내의 악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압니다. 영혼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인간본성을 망가뜨린 죄를 그 어떤 영적 행실과 정신적 훈련으로도 대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인간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그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시리아인 성수도자 에프라임은 다음과 같은 문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무엇을 위하여 육신을 입으셨는가? 육신 자체가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또 은총의 선물을 알고 이로 충만해져 ... 사람들이 날개를 단 듯 그분께 들어 올려져 그 한분 안에서 안식을 찾기 위함이었다.”(『사대복음주해』, 제 1 장) 그리스도의 육화는 죄에 묶인 노예상태를 해방하고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엽니다.

주님께서서는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12:46)라고 증언하십니다. 먼 나라에서 동방박사들을 하느님 아기 예수님께 인도한 베들레헴의 눈부신 별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참 아들딸로서’(요한

12:36)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굳건함과 용기, 인내, 영적 고결성, 대담성 그리고 이웃을 향한 가식 없는 사랑의 모범을 보고 ‘하느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그분을 송영하도록’(1 베드로 2:12) ‘이 세상을 신앙의 빛으로 밝힐’(마태오 5:14) 소명을 받았습니다.

지상의 민족들이 새로운 질병으로 인한 간단치 않은 시험을 걱정하고, 미래에 관한 공포와 근심이 사람들이 마음을 장악한 오늘날 우리는 더욱 공적·사적 기도에 열성을 더하고, 주님께 선행의 노력을 곱절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중 많은 이들이 지금 해로운 역병 탓에 성당을 참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애로우신 창조주께서 그들의 정신적·육체적 힘을 새로이 주시고, 병자들에게 조속한 치유를 베푸시고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분투하는 의사들과 모든 의료노동자들에게 당신의 도우심을 내리시도록 그분께 청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살아있는 신앙을 보전하고 모든 면에서 하느님께 의탁한다면 어떠한 문제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그러므로 그리스도 교회가 이 거룩한 성탄절 성일들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 우리가 그분께 희망을 둔다면, 우리에게 빛이 밝히리니’(대석후과 해설)라고 노래하듯이 불평하지 말고 우리에게 엄습한 시험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삶의 누추한 동굴에 신성의 지지 않는 빛이 비치고, 베들레헴의 구유처럼 망가지고 초라한 우리 마음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를 경건히 받아 모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인간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그 안은 하느님께서 거하실 만큼 넓어집니다. 시리아인 성수도자 에프라임은 증언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이는 천사들과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군림하게 됩니다.”(「미덕과 과오에 대한 설교」 3) 대축일 성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행의 완수를 위한 특별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기회를 이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자애를 베풀고, 슬퍼하는 이들, 가능하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나 그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제일 먼저 위로함으로서 강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송영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알게 하는 빛으로 지상의 민족들을 계명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로 강복하시며 우리 모두가 지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도록 도우시리. 강탄하신 하느님 아기께서 우리의 가정들에 사랑과 화목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청년세대와 우리 모두를 죄와 위험한 실수들로부터 보위해주시리. 친애하는 여러분, 광명의 그리스도 성탄 대축일을 거듭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께 건강과 그치지 않는 기쁨 그리고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요한 1:9)이신 하느님의 크나큰 도우심을 기원합니다. 아멘

키릴

모스크바 및 전 루시 총대주교

2020/2021 년

그리스도 성탄 대축일 모스크바